

단순 종기 아닌 만성 염증...정확한 진단이 치료 시작



건강 바로 알기 화농성 한선염

김민성·최훈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

#20대 여성 환자 A씨는 수년간 겨드랑이에 반복적으로 종기와 고름이 생겼으나 근본적인 호전 없이 피부 속에 농루(고름길)와 흉터가 형성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화농성 한선염은 단순한 피부 질환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과 사회생활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국내에서만 약 1만 명의 환자가 고통받고 있다.

화농성 한선염은 겨드랑이, 사타구니, 엉덩이 등 땀샘이 많은 부위에 크고 아픈 종기와 농양이 반복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을 단순 종기와 구분 짓는 가장 위험한 차이점은 바로 피부 속에 갇힌 농루관(고름길)이 형성되어 염증이 반복되고 깊어진다는 것이다. 이 농루관은 광범위한 흉터와 악취를 동반하며, 이로 인해 환자의 사회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화농성 한선염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부의 모낭이 막히면서 시작된다. 막힌 모낭이 터지면서 피부 깊은 곳으로 염증 물질이 확산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농루관이 형성되어 피부조직이 파괴되는 것이다. 이 질환은 보통 사춘기 이후에 발생하며, 특히 여성에서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땀샘 많은 부위 종기·농양 반복 발생
농루관 형성되면 흉터·악취 동반
약물 치료 후 외과적 수술 필요
재발 예방 위한 생활습관 개선 중요

부위, 남성에서는 엉덩이나 항문 주위에 더 흔하게 발생한다. 이 질환은 인지도가 낮아 단순 여드름이나 종기로 잘못 알고 진단까지 평균 5~7년이 소요되는 '진단 방랑(Diagnosis Odyssey, 정확한 병명 진단까지 여러 병원을 오랜 기간 헤매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진단이 늦어질수록 병변 부위가 넓어지고, 반복적인 염증과 흉터는 해당 부위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심한 경우 영구적인 변형을 남겨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자주 재발하는 종기가 있다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기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농성 한선염의 치료는 염증의 확산을 막고 재발 위험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되며, 항생제 치료·생물학적 제제·병용 요법 등이 있다.

항생제 치료는 초기 환자에게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첫 단계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항생제만으로는 염증의 불씨를 잠시 줄이는 정도로, 재발 위험이 남아 있다.

생물학적 제제는 국소적인 치료를 넘어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

달리무렵과 같은 생물학적 제제들이 주요 치료 옵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염증 유발 물질인 TNF-알파(Tumor Necrosis Factor-alpha)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또 일부 환자에서는 호르몬제나 면역억제제를 단기적으로 병용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피부 속에 이미 고름길과 심각한 흉터가 형성된 경우에는 약물치료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때는 병든 조직을 뿌리째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은 화농성 한선염의 재발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수술과 약물치료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재발을 막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재발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은 다음과 같다.

▲금연 : 흡연은 염증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증가시켜 염증을 악화시키고 수술 후 회복을 늦추는 주요 요인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체중 관리 : 비만은 피부가 접히는 부위의 마찰을 심하게 하고 땀 분비를 늘려 염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체중 관리는 마찰과 자극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피부 위생 : 샤워 후 땀을 잘 닦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어 피부의 청결함과 건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병변 부위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찰 줄이기 : 꽉 끼는 옷 대신 편안하고 넉넉한 의복을 입어 환부의 물리적인 자극을 최소화한다.

▲정신적 관리 : 스트레스는 면역 및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정신적



조선대병원 피부과 최훈 교수가 화농성 한선염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안정을 취해야 한다.

최훈 교수는 "화농성 한선염은 단순히 종기가 잘 나는 체질이 아니라 만성적이고 파괴적인 질환이므로, 약물치료로 염증의 불씨를 줄이고 생활 습관 교정을 병행해야 재발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

성 교수는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는 중증 환자는 수술로 병든 조직을 뿌리째 제거해야 재발과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상담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전남대병원, 에크모 1000례 심포지엄 성료

중증 심폐부전 치료 성과 재조명 세계 최고 ECMO 센터 도약 기대

전남대병원이 에크모(ECMO·체외막 산소공급 장치) 1000례 달성을 기념해 지난 7일 병원 의생명 연구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ECMO 1000 Cases Celebration Symposium'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9년 첫 에크모 시행 이후 16년간 축적된 중증 심부전·심정지·폐부전 치료 성과를 되돌아보고, 병원이 걸어온 에크모 발전의 발자취를 재조명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정인석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에크모 1000례 달성을 함께 이끈 호흡기내과 고보건 교수, 심장혈관흉부외과 김도완 교수, 순환기내과 임용환 교수,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 소아청소년과 조화진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치료 과정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김도완·조화진 교수가 사회를 맡아 실제 에크모 치료를 받은 환자와 가족을 초청해 생생한 치료 및 회복 경험을 들었으며, 3부에서는 순환기내과 김민철 교수와 심장혈관흉부외과 허

유석 교수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팀워크의 의미', '도전과 보람'을 주제로 의료진과 토크 세션을 진행해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전남대병원은 연간 100례 이상 에크모 치료를 시행하며 국내 에크모 분야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세계에크모학회(ELSO)'에서 우수센터 골드 등급을 획득해 생존율과 치료 성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회복이 어려운 중증 환자를 위해 ▲2018년 심장이식 ▲2021년 심실보조장치(VAD) 수술 ▲2023년 폐이식 프로그램을 잇달아 도입하며 ECMO·VAD·이식으로 이어지는 통합 중증 치료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진의 발표부터 환자·가족의 회복 스토리, ECMO 팀의 경험을 나누는 패널 토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인석 전남대병원장은 "앞으로도 ECMO 치료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ECMO 센터로 도약하겠다"며 "지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변함없이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조선대병원, '로봇 간이식 기증자 수술' 성공

호남·충청 최초...최첨단 로봇 수술

조선대병원이 호남·충청 최초로 로봇을 이용해 간 기증자의 간 절제 수술에 성공했다. <사진> 조선대병원 외과 신민호 교수는 지난달 3일 간 기증자의 간을 절제하기 위한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간 기증자는 수술 후 특이소견이 없어 퇴원했고, 수혜자는 순조롭게 회복 중에 있다.

이번 '로봇 간 기증자 수술' 성공은 호남·충청지역에서 최초이며, 기증자 수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간 기증자에 대한 로봇수술은 의사가 직접 로봇을 조종하는 최소 침습 방식으로, 10배 확대된 3차원 고해상도 영상 등을 통해 좁은 공간에서도 미세 혈관과 담관을 보다 정확하게 절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 출혈과 통증을 줄이고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며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생체 간 이식의 기증자 간 절제술은 개복수술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광범위한 절개로 인한 출혈 위험, 심한 통증, 긴 회복 기간 등으로 기증자의 부담이 적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최소 침습 수술법인 복강경 기증자 간 절제술이 확산되고 있다. 개복수술에 비해 절개 부위가 작아 출혈



과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좁은 시야에서 미세 혈관을 보존하며 구조가 복잡한 간을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숙련도가 필요해 국내에서도 소수 병원에서만 시행되는 고난도 수술이다.

신민호 교수는 "생체 간 이식은 건강한 사람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수술인 만큼 기증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로봇 수술은 기증자의 출혈과 통증을 최소화하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어 향후 기증자 간 절제술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비영리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기관의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해남진도지사, 무안신안지사도 함께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어 사회공헌에 대한 전사적인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올해 ▲전남 진도군 의료·물자봉사 ▲은둔·고립층년 지원사업 ▲위기임산부 지원사업 ▲광주·전남지역 수해복구 ▲영유아 돌봄봉사 ▲특기노인 배식봉사 등 다각적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영희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며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승원 기자 swseo@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